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0

오누이의 똑똑한 가전제품 작전



AI도움받아 손연순썸

작가프로필



따스한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는 동화작가입니다.

선비이셨던 아버님의 품을 떠나,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후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만의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졸업장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을 통해 AI라는 새로운 세상까지 마주하며, 그 속에서 피어난 소중한 이야기들을 모아 동화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늦깎이 배움이 안겨준 깊은 지혜와 따듯한 온기로, 아이들과 어른 모두의 마음을 보듬는 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깊은 산골에 연이와 힘이 오누이가 살
았 어요. 하루는 엄마가 이웃 마을에 떡을
팔러 가시며 집 안의 AI 스피커를 켜지요.
"아리야, 나 없는 동안 우리 강아지들 좀
잘 돌봐주라잉. 애들아, 문 꼭 잠그고 있어
야 한 다, 잉?"

"걱정 마세요, 엄마! 스마트 도어락도 '찰
각' 잠갔는걸요?"

"엄마, 올 때 맛있는 떡 꼭 남겨와잉!"



엄마는 씩씩하게 길을 나섰지만, 컴컴한 고갯길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났어 요. 어두운 나무 뒤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가 쓱 나타나 엄마 앞을 막아섰지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오메, 근데 그 손에 든 번쩍이는 기계는 뭐다냐?"

"아이구, 깜짝이야! 이건 우리 애들이랑 연락 하는 스마트폰이요. 제발 살려주시오!"

"흐흐, 요걸로 엄마 목소리를 흉내 내면 아주 쉽게 집으로 들어가겠구만!"



스마트폰을 빼앗은 호랑이는 오누이 집 앞
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벨을 눌렀어요. 땡
동! 방 에서 책을 읽던 오누이는 초인종 소
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문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애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줘라~"

"앗, 엄마 오셨다! 얼른 문 열어드려야
지!" "잠깐만, 힘이야! 목소리가 로봇처럼
똑같이 반복되잖아. 아따, 이상하구만. 인
터폰 화면부터 확인하자."



연이가 까치발을 들고 모니터 화면을 보았
어 요. 하지만 인터폰 화면은 온통 캄캄해
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문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 누군가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꼭 가리고 있나 봐."

"에구구, 엄마가 추워서 두꺼운 장갑을 껴
더 니 렌즈를 가렸는가 보다! 얼렁 문 열어
라 잉!"

"엄마 목소리 같기는 한디…… 화면이 안
보 이니까 조금 무섭구만."



의심이 생긴 연이는 진짜 엄마가 맞는지 확인 하기 위해 문틈으로 손을 보여달라고 했 어 요. 그러자 문틈으로 정체 모를 무시무 시한 발이 쑥 들어왔지요.

"오메! 이게 무슨 엄마 손이야? 털이 이렇 게 많고 발톱이 뾰족한데?"

"아따, 날이 추워갖고 손이 터서 거칠거칠 해 진 것이여! 그라지잉?"

"누나! 장갑이 아니라 진짜 짐승 털이여! 호 랑이가 분명해!"



정체가 들통난 호랑이가 무서운 이빨을 드러 내며 문을 쿵쿵 부수기 시작했어요. "쿵! 쿵!"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 지요. 그때 연이가 번개처럼 AI 스피커 앞 으로 달 려갔어요.

"아리야! 지금 당장 거실 로봇청소기들이 랑 스마트 조명 '방어 모드'로 켜줘!"

"네, 침입자 방어 모드를 시작합니다." "누 나, 방어 모드가 뭐다냐? 저 커다란 호랑 이를 막을 수 있겠어?"



문이 철컹 열리고 호랑이가 집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거실 구석에서 무언가 웅웅 소리를 내며 돌진해 왔어요. 쿵! 문을 부수고 들어온 호랑이 발밑으로 로봇청소기 세대가 바쁘게 굴러다니며 발목을 가로막았지요. "오메, 깜짝이야! 요 발밑에서 굴러다니는 동그란 괴물들은 뭐다냐!" "힘이야, 지금이야! 호랑이가 정신없을 때 뒷마당 나무 위로 도망 치자!" "알았어! 호랑이야, 내 발목 잡지 말고 청소기나 피해라잉!"



호랑이가 소리를 지르며 청소기를 걷어차려 고 할 때, 마당 나무 위로 올라간 연이가 스마트폰 앱을 탁 눌렀어요. 그러자 온 마당의 스마트 조명이 사이렌처럼 빨강고 파랗게 번쩍 번쩍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으악! 눈이 부서 죽겠네! 빛이 왜 요로코롬 번쩍인다냐! 눈을 못 뜨겠어!" "동물들은 갑자기 번쩍이는 강한 불빛을 제일 무서워해! 힘이야, 더 높이 올라가자!" "휴, 다행이다. 근데 누나, 불빛이 꺼지면 어떡하지?"



경찰 드론과 구조대원들이 들이닥치자 호랑이는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와, 살았다! 누나가 AI 기기를 똑똑하게 써서 호랑이를 물리쳤네!"

"평소에 안전 교육을 잘 받아두길 참 잘했어요."

이때 무사히 돌아오신 엄마가 오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겁먹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지혜롭게 사용한 오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책속의 부안사투리

- ~주라임 / ~한다, 임? / ~남겨와임! / ~라임!
- 뜻: 문장 끝에 붙는 어미 '~임'은 전라도 방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말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다정하게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 뭐다냐? / 뭐다냐!
- 뜻: "무엇이냐?"의 방언입니다.
- 오메
- 뜻: 깜짝 놀라거나 감탄할 때 쓰는 감탄사로, 표준어의 "어머나", "아이구"와 같습니다.
- 아따
- 뜻: 감탄사로, 사정이 묘하거나 하찮은 일에 기가 막힐 때, 또는 어떤 것을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할 때 씁니다. (예: "아따, 이 상하구 만")
- 보니께
- 뜻: "보니까"의 방언입니다.
- 얼렁
- 뜻: "얼른(빨리)"의 방언입니다.

그것이어 / 거칠거칠해진 것이어

- 뜻: '~인 것이다'를 뜻하는 '~인 것이여'로, 전라도 특유의 서술형 어미입니다.
- 그라지임?
- 뜻: "그렇지?", "맞지?"라는 뜻의 동의어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 진짜 짐승 털이어! 호랑이가 분명해!
- 명사 뒤 '~여': 전라도에서는 문장 끝 명사 뒤에 '~야' 대신 '~여'를 자주 붙입니다. (털이어, 분명해 -> 분명허구만 등)
- 막을 수 있겠어?
- 뜻: "막을 수 있겠어?"의 방언입니다. (~겠~ -> ~겼~)
- 요로코롬
- 뜻: "이러코롬"과 함께 쓰이며, "이렇게", "이런 식으로"를 뜻하는 방언입니다.
- 홀라당
- 뜻: 남김없이 몽땅 삼키거나 벗겨지는 모양을 뜻하는 강조 표현입니다.
- 십년감수했구만!
- 뜻: 수명이 10년이나 줄어들 뻔했다는 뜻으로, 아주 위험한 고비를 넘겼을 때 쓰는 표준 표현이나 문장 끝에 '~구만'을 붙여 사투리 맛을 살렸습니다.

